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카르스텐 슈미트
Carsten Schmidt

개인적 무의식과 사회적 무의식 사이에 걸려 있는 나치 과거의 청산문제

21세기의 문턱에서 나치 시대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듯하다. 나치 시대와 관련된 언어 사용에 있어서 독일 총리 게하르트 슈뢰더가 사용한 ‘정상적 수사修辭’란 표현은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표현은 물론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홀로코스트 기념비가 세워진 곳을 ‘즐거찾을 만한’ 장소로 표현한다든지, 독일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나라로 표현하는 것¹⁾ 등이 그런 예이다. 이 말이 만약 68세대의 입에서 경솔하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나치 과거를 대하는 사회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도

1) R. Mohr, 1998, p.40.



한다.

예전에 주로 통용되던 ‘나치 과거의 청산’이란 표현도 당시의 의식수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청산’(처리·제거·제압)이란 단어는 과거를 대하는 태도의 저변에 깔려 있는,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노력의 표현이다.²⁾ 리히터Richter는 이 청산한다는 개념에는 청산될 대상을 나중에 가서 이미 처리된 서류 더미처럼 책상에서 치워버리고 새로운 일에 매달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³⁾

나치 과거를 극복하고, 통제하고, 끝낸다는 것은 항상 근사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나치 과거 자체가 이런 시도를 차단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나치즘을 둘러싼 논의는 항상 모든 ‘정상적 수사’와 날카롭게 대치되는 뜨거운 요소를 보여왔다.

골트하겐 논쟁⁴⁾이나 홀로코스트 기념비 논쟁, 또는 독일군 편제를 둘러싼 논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처에서 독선적인 논의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논의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회적 논의와는 달리 쉽게 흥분하며 도덕적 양자택일의 문제로 단순화시킨다. 그리하여 유감스럽게도 논의는 항상 각 토론자가 상대방을 비난하며 끝나게 된다.⁵⁾ 이렇게 볼 때 나치 과거에 대한 귀찮은 논의를 끝내고자 하는 희망에서 사람들이 ‘베를린 공화국’이나 ‘새천년’과 같은 신화

2) H. E. Richter, 1995, p.53.

3) G. Brockhaus, 1997, p.118.

4) Goldhagen 논쟁 : 홀로코스트로 가는 바로 전단계로서, 체계적으로 유대인의 경제적 존립기반을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를 말한다. 1935년 독일제국시민법이 제정된 이후 1941년까지 유대인의 경제적 기반을 말살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취해졌으며, ‘유대인을 독일의 경제행위에서 배제한다’는 목적이 공공연히 선언되기도 했다.

5) G. Hofmann, 1996, p.10.

적인 은유에 집착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파악되지 못하고 억눌려 남아 있는 한 사람들의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된다. 청산 개념이나 최근의 논쟁에 모순되고 왜곡된 상을 부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적 두려움·죄의식·자기방어—마르틴 발저의 예

에리히 프롬의 ‘사회적 무의식’에 대한 이론은 이런 두려움의 요소를 탐구하는 데 매우 적절하게 적용된다. 이 글의 출발점이 되는 ‘무의식적 두려움’은 복합적이고 특수한 형태로 전개되는 개인적·사회적 억압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포로가 되기도 했던 독일의 저명한 소설가 마르틴 발저가 1998년 10월 11일 프랑크푸르트의 파울 교회에서 독일 서적상연합회가 수여하는 평화상을 받으며 행한 연설과 그것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이다. 당시 그의 연설 내용은 모호하면서도 죄의식과 갈등에 대한 자기방어로 일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작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가 속한 세대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르틴 발저의 연설은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독일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자기방어 또는 자기변호의 욕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 연설의 주요한 내용이나 전체 문맥을 해석하는 데 에리히 프롬의 방법이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프롬 자신이 1930년대에 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에 관한 글을 연구하면서 사용한 방법⁶⁾으로, 화자의 표현에

6) E. Fromm, 1980a, GA III.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담긴 무의식적 의미 영역을 화자 스스로에게 열어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말하는 본래 동기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발저의 연설은 ‘자아탐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⁷⁾ 비판적 성격일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 연설엔 작가의 언짢은 심기만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은 그의 ‘자유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영혼이 그동안 그토록 비난해 왔던 고착화된 생각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니, 발저는 사실 자신과 청중에게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제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도덕적·정치적으로 타락한’ 저열한 무리들 속에서 홀로 독자청청한 채하며 세대를 꾸짖고자 하지도 않았다.⁸⁾

발저는 동료 지식인들이 고발하는 ‘고통스러운 내용들’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거의 반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통만 안기려 한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 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 발저는 자신이 이런 ‘도덕적 피학중세’의 원인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지식인들이 독일인에게 끊임없이 들이대는 ‘독일의 역사적 짐’이자 ‘씻을 수 없는 치욕’ 때문이었다.

발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피할 수 없는 짐인가? ‘그렇게 자꾸 기억을 상기시키면 독일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냉혹한 대립관계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지식인들은 생각하는가?’ 마르틴 발저는 그러한 환상을 가질 수 없었다고, ‘자신이 피고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7) M. Walser 및 I. Bubis, 1998, p.35.

8) M. Walser, 1998a, p.9-15.

발저의 고백을 들어보자.

사방에서 나를 피고로 지적하는 손길이 느껴질 때 나는 스스로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방송 매체에서도 이런 고발이 정기적으로 행해진다. 집단수용소를 묘사하는 끔찍한 장면들 때문에 나는 스무 번 이상 고개를 돌려야 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우슈비츠를 부정하거나 그곳에서 벌어진 참상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이런 끔찍한 과거를 마주 해야 했을 때 그러한 재현에 대한 거부감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그런 씁쓸한 재현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고개를 돌려버린다.⁹⁾

여기서 마르틴 발저의 자아탐구는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적어도 이 연설에서는—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갑자기 중단되고 만다. 고개를 돌리는 것은 다만 당시의 참상을 직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그 사건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되풀이해서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개를 돌리는 행위는 이렇게 되면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다.

이런 자기방어의 행동은 개인들에게 마치 이미 오래 전에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아직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이로써 나치 과거의 문제가 처리된 것으로 되어버린다.

9) M. Walser, 1998a, p.16-18.



발저에 따르면 나치 과거의 청산문제가 나치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상상하기조차 힘든 잔혹함이나 그것을 결코 덮어둘 수 없는 희생자들이 겪었던 엄청난 고통 때문에 오늘날까지 계속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과거를 대하는 우리들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 때문도 아니다. 발저는 계속되는 나치 과거에 대한 언급은 미디어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비열한 집단의 음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¹⁰⁾ 그들이 누구인지 연설문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들 익명의 집단에 작가의 분노가 쏟아진다. 그는 이들 집단을 ‘양심의 보호자 또는 양심의 신탁통치자’¹¹⁾이라고 부르고, 작가에게 ‘윤리의 총을 겨누고 생각을 강요하는’ 정신적 병사들이라고 말했다.¹²⁾ 그의 연설을 대하고 있노라면 청중 또는 독자들은 지금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그리고 청중에게 그렇게 큰소리로 ‘용감하게’¹³⁾ 고발하고 있는 연사는 그 음모의 희생자임에 틀림없다. 그 정당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에서조차 터져나오는 청중의 박수는 이 연설이 청중과 연대의 효과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발저는 독일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시켰다고 말했다. 독자 혹은 청중들은 바로 그러한 목적들을 폭로하는 것이 그가 행한 연설의 참된 동기라고 느낀다. 그 연설에서 마르틴 발저는 자신의 최신작 《솟아오르는 샘물 *Ein springender Brunnen*》을 비판적으로 평한 문학비평가 헬무스 카라제크¹⁴⁾에게 다

10) S. Friedländer, 1998, p.50.

11) M. Walser, 1998a, p.13.

12) 앞의 책, p.25.

13) 앞의 책, p.20.

14) Helmuth Karasek : 독일의 유명한 책소개 관련 TV 프로그램인 <문학 4중주>의 패널 중 한 사람.

음과 같이 반론했다.

멋지게 생긴 한 지식인이 텔레비전에 나와 진지한 얼굴을 하고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심각한 문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란 어떤 작가의 책에 아우슈비츠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설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거나, 혹은 설사 그렇다 해도 시대정신이 항상 미학에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¹⁵⁾

마르틴 발저가 여기서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창작의 자유에 대한 주장에는 카라제크에 대한 단순한 반론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그 반론에서 발저는 상대방을 냉소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 자신의 자전적인 신작 소설에 대한 카라제크의 비평이 발저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카라제크는 다름 아닌 발저 자신의 생애에 관한 기록인 그 책에서 아우슈비츠의 문제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 카라제크는 내부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비판했는데, 발저는 한 토론에서 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단 한번도 그런 갈등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제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양심에 비추어 할 수 있는 말은 그 문제에 휘말려 들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뿐입니다.¹⁶⁾

15) M. Walser, 1998a, p.19.

16) M. Walser 및 R. Augstein, 1998, p.72.



과거가 절대로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문학적으로 처리해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은 발저에게는 사실 악몽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1960년대에 작가로서 그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 문제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요. ‘나는 그것을 처리했다. 이제 나는 그 문제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의 그런 태도가 너무 소박한 것이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¹⁷⁾

이와 같은 잘못된 주관적 태도에는 일종의 죄의식이 깔려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죄임을 주장하는 작가로서는 이런 죄의식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없는 듯하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쉽게 처리되지도 않는 이런 내부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작가는 공적인 형태의 나치 과거의 청산문제를 위의 인용에 기술된 방식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이런 갈등과 대면하는 것보다는 시칭률에 목을 매는 방 송과 도덕주의적 지식인들의 은밀한 동맹관계를 비난하는 것이 작가에게는 훨씬 수월한 일이었을 것이다. 발저는 또 자기 연설의 해방적 작용력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방어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제까지 아우슈비츠란 단어와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체 홀로코스트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도구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발저의 지적¹⁸⁾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의 이분법적 논의 스타일과 표현의 강도로 볼 때 일견 타당해 보이는 그의 지적은 작가 자신의 내부 심리적 갈등을 감추려는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17) 앞의 책, p.72.

18)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Nr. 290, p.39 이하.

양심의 갈등은 작가의 또 다른 반응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치 과거와 관련하여 발저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고독한 과거청산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¹⁹⁾ 그는 현재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거청산이란 것들이 한결같이 솔직하지 못하고 도식적이며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 시절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부모들이 일찌감치 나치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도 발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며 단지 후세에 행해진 역사 조작의 한 결과일 뿐이다. 친구 아우그슈타인²⁰⁾에 대해서도 발저는 다음과 같은 냉소적이고 비하적인 평가를 내린다.

자네는 과거를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네만 그것은 소설이라네. 자네의 이야기에는 유혹이 없네. 자네는 단 한번도 유혹에 빠져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네는 그야말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최되는 독일군 순회전 시회의 선전판일 뿐이라네.²¹⁾

마르틴 발저의 어머니는 나치 초창기에 이미 NSDAP(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당, 나치스)에서 활동했다. 그 자신 또한 전쟁에 자원하여 참전했다. 그는 자신의 자원입대를 당시 고향마을을 지배하고 있었던 위압적인 분위기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다. 그의 말대로 모든 자원 입대자들을 곧장 나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²²⁾

19) M. Walser, Rede, 1998, p.21 이하.

20) R. Augstein : 1923~. 독일의 잡지 발행인. 1946년부터 《슈피겔》 지誌를 발행하였다.

21) M. Walser 및 R. Augstein, 1998. p.60.

22) 앞의 책, p.58.



동시대를 체험한 두 사람, 발저와 카라체크의 극히 흥미로운 이 대화를 잘 관찰해 보면 발저의 연설에 담긴 진의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발저는 아마도 자신이 살아온 생의 한 시기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카라체크의 대화에는 이미 앞의 연설로 인한 논란 때도 강도 높게 제기되었던 그에 대한 비난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카라체크는 발저의 가족 배경과 자원입대를 겨냥하여,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의 꺾에 넘어간 자는 이미 어느 정도 동조한 것이며,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는 나치’라고 말한 것이다.²³⁾

사실 이런 비난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감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갈등으로 인한 강박의식에 시달려 온 사람에게 그것은 그냥 흘러들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 너무 과장되었거나 또는 개개인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해도 비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필사적으로 변호하게 된다. 비난을 당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피고자와 동일시하게 된다. 책임 여부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피고석에 앉히게 된다. 발저의 연설 내용은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그는 이야기의 전개구조를 통해 다수의 청중들에게 마음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제공했다.

연설자는 관객과의 일치감을 꾀한다. 그는 관객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뒤 간단하게 그런 불쾌감의 원인을 제시한다. 발저의 이 원론적 논의 스타일은 적대적 관계를 설정토록 해준다. 이런 논의 구조 속에는 마음의 부담을 벗어던지게 만드는 아주 유혹적인 선물

23) 앞의 책, p.58.

이 담겨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치 과거에 대한 기사나 토론 등을 보는 것이 불쾌한 사람들에게 발저는 그런 불쾌함을 타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즉, 그들은 단지 미디어와 지식인들의 음모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나치 과거, 사회적 무의식, 방어적 태도의 제도화

나치 과거와 관련하여 ‘사회적 무의식’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항변을 들어보기로 하자. 하나는 대중매체나 지식인들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나치 과거의 억압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과연 납득할 만하느냐는 것이다. 또 설령 이런 과거의 억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나 가족 내에서 혹은 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논의의 핵심은 사회적 무의식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억압된 내용이 집단이나 세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사회적 무의식엔 그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에게서 나타나는 ‘억압된 내용’이 포함된다.²⁴⁾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억압되어 있는 사회의 특수한 ‘내용’과 ‘모순’이다. 이런 요소들이 의식으로 끌어올려지면 사회질서가 ‘마찰 없이’ 기능하는 데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²⁵⁾ 왜냐하면 개인들의 의식 내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대개 각자의 ‘의식적 사고’를 지배하는 범주들과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4) E. Fromm, 1962a, GA IX, p.96.

25) 앞의 책, p.96.



각 사회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하고 느끼고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식형태를 지배하는 일정한 범주체계를 형성한다. 이런 체계는 일종의 ‘사회적 필터’와 같이 작용하며, 각 개인의 감정은 이 필터를 통과함으로써만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²⁶⁾

프롬에 의하면 이런 필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속하는 것으로 ‘논리’와 ‘사회적 금기’와 ‘언어’가 있다.²⁷⁾ 자신의 사회심리적 분석에서 프롬은 특히 언어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언어는 어휘와 문법과 문장구조, 그리고 언어에 담긴 총체적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한다.’²⁸⁾

언어적으로 고착된 방어와 변호전략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화에서도 항상 되풀이된다. 발저의 평화상 수상 연설이나 그 후에 진행된 논쟁에도 이런 전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전략은 그것이 되풀이해서 사용되고 또 각 개인의 해석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과정을 통해 프롬이 말한 의식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나치 만행에 대한 집단적 침묵〉이라는 글에서 가브리엘 로젠탈 Gabriel Rosenthal은 이것을 ‘방어적 태도의 제도화’로 표현했다.

여기서 제도화는 각 주체에게 부과된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전략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사회적 현실은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 사회적·집단적으로 각 개인에게 부과되고 또 대부분 분명히 의식되지 못한 채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방어적 태도의 제도화는 매우 다른, 심지어는 반파시즘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조차도 그럴 필요가 전혀

26) 앞의 책, p.112 이하.

27) 앞의 책, p.113-116.

28) 앞의 책, p.115.

없는데도 이런 방어적 태도에 젖어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따른다. 이런 태도는 사회 전반에 걸친 조처가 취해질 때만이 변화될 수 있다.²⁹⁾

이런 ‘제도화된 방어적 태도’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전략의 하나가 ‘책임의 외부화’이다. 이 방어전략은 독일 전후시대의 역사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그중 하나가 히틀러 개인과 소수의 확신범들에게 범죄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³⁰⁾ 또 다른 방어전략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서로의 죄를 상쇄시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사실 드레스덴에 퍼부어진 무차별 폭격이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는 연합군에게도 책임을 묻기에 충분했다.³¹⁾ 또 죽음에 직면한 유대인들의 입국을 거부한 국가들의 잘못도—악의에 찬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그냥 방관만 한’—대다수의 독일 국민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다는 논리도 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한 상호상쇄 방식은 원하는 대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방어와 변호전략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치적 견해를 합리화시킬 때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프롬식의 사회심리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전략들은 ‘사회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정서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개인적인 ‘두려움’과 해석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까닭에 그 사회에서 커다란 ‘매력’을 지니게 된다.³²⁾

이러한 전략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기모순에서 벗어나려 하

29) G. Rosenthal, 1992, p.22.

30) A. & M. Mitscherlich, 1988, p.25 이하.

31) 앞의 책, p.43.

32) E. Fromm, 1941a, GA I, p.380 이하.



는 시도도 포함된다. 전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 테러가 미치는 위협적 영향을 지적하면서도 그 안의 구성원 전체가 재빨리 복종한 사실에 대해서는 도외시해 버리는 사람들은, 당시의 국가적 폭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 든다. 이러한 방어태도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려는 현상을 일으켜 과거 억압의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슈피겔》지誌에 실렸던 아래의 편지에서는 한 여성 독자가 이미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온 부담 회피의 논리를 통해 만들어진 자신의 방어태도에 발저의 평화상 수상 연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1927년생이라면 다 범죄자인가요? (피고인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는다.) 미국 어디에 수백만 인디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가 있나요? 히로시마를 위한 추모비는? 베트남전 희생자는? 스탈린의 대량학살에 대해 침묵한 러시아 민족은 왜 범죄집단으로 여기지 않나요?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넘어간 1,300만의 사람들 중에 살아 돌아온 것은 9백만에 불과한데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1953년 이후 방송과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도 범죄자였나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 건립하고 있는 추모비에 집시들 이름을 넣는 것을 거부하나요?³³⁾

발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독자도 언론의 보도와 사회적 논의의 문제를 일반화된 고발로서 받아들인다. 다만 이 독자는 고발의 대상을 자신과 자신의 동시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는 홀로코스트 문제를 다른 것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죄의식을 감소시키

33) Der Spiegel, No.51, 1998, p.8.

고자 시도했다. 물론 마르틴 발저의 연설이 이런 왜곡된 정당화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독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에 연상 근거를 제공했다.

집단적으로 전승된 방어태도와 유사한 발저의 언어 표현은 분명히 이런 방식의 반응을 부추기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스 폰 도나니³⁴⁾의 입장표명을 들어보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 독일인들이 그 짓을 했다. 이그나츠 부비스³⁵⁾는 유대인이기에 다른 의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볼 때에는 ‘저’ 독일인들이 그 짓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만약 1933년 이후에 ‘오로지’ 장애인과 동성애자, 그리고 집시들만 집단수용소로 끌려갔더라면 그들이 과연 다른 대부분의 독일인들과는 다르게 용감하게 행동했었을 것인가 하고 말이다. 우리 각자는 이런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³⁶⁾

클라우스 폰 도나니는 자신의 연설에서 홀로코스트를 독일적 정체성의 일부로 묘사했다. 위의 글에서 ‘그 짓’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미 이 연설이 언어적으로 과거와 거리를 두려고 시도하

34) Klaus von Dohnanyi : 1929~ . 독일의 지휘자. 뮌헨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였으나, 그 이후 1948년 음악으로 전향하였다.

35) Ignatz Bubis : 1927~99.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로 다시 돌아와 유대인 단체들 사이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았다. 1992년 독일 유대인 중앙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발저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36) K. von Dohnanyi, 1998, p.40.



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독일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생각과는 달리, 위와 같은 식으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의도는 그의 연설 전체의 특징을 이룬다. 그의 연설은 결국 유대인 시민들에게 그들이 과연 당시 상황에서 독일인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볼 것을 촉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유대인 이그나츠 부비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위와 같은 자가당착적인 논리의 희생자라고 말하고 있는 도나니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내부 심리적 갈등의 결과로 이제까지 그 자신이 지녀온 감정입의 능력조차 상실한 듯하다.

이와 유사한 감정입 능력의 상실은 발저가 화해의 제스처로 이그나츠 부비스와 나누었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발저 : 부비스 씨,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겠군요. 내가 한창 이 문제에 몰두하고 있을 그 시점에 당신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가서야 이 문제에 참여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늦게 이 문제에 참여했습니다.

부비스 : 그랬었다면 나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문제에 더 일찍 참여했다면 나는 삶을 지속시킬 수 없었겠지요.

발저 : 그런데 나는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현재 제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지요.³⁸⁾

발저도 도나니도 모두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부 심리적 갈등을 겪어야 했는지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갈등이 그들로 하

37) R. Wodak, 1990, p.221.

38) M. Walser & I. Bubis, 1998, p.39.

여금 방어태도의 제도화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전 생애에 걸친 방어전략’³⁹⁾과 세대간의 대화

책임의 외부화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보는 데까지 간 듯하다. 그것은 피고의 위치에 선 사람일 수도 있고 공개석상에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미 언급된 방어와 변호전략들은 사회나 한 세대 전체가 부당하게 고발당했다고 항변함으로써 책임을 줄여보려는 노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전 생애에 걸친 전략’으로서 나치 과거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생애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방어전략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전략들은 전후에 널리 퍼진 ‘딜레마’에 대한 반응과 관계 있다. 지속적인 ‘정체성 논쟁’⁴⁰⁾은 스스로를 ‘과거가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없게 했다. 그것은 또 ‘그런 과거’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⁴¹⁾

로젠탈에 따르면 세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나치 과거의 정치적 의미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전 생애에 걸친 전략은 독일인의 생활사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나치의 정치제도와 얽혀 있던 자신의 과거를 정치적이고 전체 사회적인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거기에는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범죄행위와 대면했었던 삶의 체험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치 시대와 그들의 범죄행위로부터 깨끗한 자신의 과거를 확보

39) G. Rosenthal, 1990, p.231.

40) J. Müller-Hohagen, 1988, p.200.

41) G. Rosenthal, 1992, p.26.



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⁴²⁾

이런 탈정치화 전략이 대대적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내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어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는 2~3세대로 전해짐에 따라 점점 확고해져 갔으며, 가족 간의 유대관계 또한 위와 같은 방어과정에 참여하고 전승시켜야 하는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압박이 얼마나 강했고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조부모와 부모들은 2~3대의 자손들에게 종종 침묵의 메시지로 자신들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견딜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⁴³⁾ ‘왜 나치에 대항하지 못했는가?’ 라는 도식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침묵의 메시지에 못지않게 공허한 것이었지만, 2대까지는 그런 대로 통할 수 있었다.⁴⁴⁾ 일상의 대화를 지배했었던, 그리고 거의 깨뜨리기 힘든 ‘침묵의 벽’을 만든 이러한 제도화된 방어와 변호전략에 대해서 자식과 손자들은 자주 반기를 들었다. 이런 침묵의 벽이 오히려 질문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을 수도 있다. 세대간의 대화에서 필요한 감정이입을 이런 질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⁴⁵⁾

그러자 세대간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성이 차츰 커졌고, 그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젊은 세대를 심하게 괴롭힌 죄의식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르기트 롬멜슈파허 Birgit Rommelspacher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침묵에 그 원인이 있다.

42) 앞의 책, p.26 이하.

43) M. Hecker, 1992, p.226.

44) G. Rosenthal, 1992, p.29.

45) J. Müller-Hohagen, 1988, p.122.

죄의식이 생겨난 것은 선조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후손들과 부모 및 조부모와의 관계 때문이다. 선조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죄의식은 자손들에게도 전가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잘못을 떠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조사한 설문 응답자 중 한 사람이 한 이 말은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⁴⁶⁾

‘가정에서 개인들의 침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고 언론도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주제는 —수많은 가족상담 치료에서 나타나듯이—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에 와서 가정은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비중을 많이 상실했다. 하지만 나치 과거와 관련해서는 가정이 ‘사회의 심리학적 대리인’이란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 나치 과거를 청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문제가 가진 억압적 내용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지금껏 언급한 방어전략은 억압된 내용을 사적·공적 의식에서 모두 멀리 떨어뜨리고자 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휴머니즘에 입각한 대안을 세우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우선 사람들이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다.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에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의식하는 것은 자신이 느끼고 눈치챈 어떤 것에 대해 항상 의식이 깨어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항상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⁴⁷⁾

46) B. Rommelspacher, 1998, p.7.



필자가 보기에 에리히 프롬의 ‘사회적 무의식’ 이론은 이러한 의식의 과정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단초들을 제시하고 있다.

■ Carsten Schmidt : 1966년 출생. 독일 카셀 대학에서 사회학과 생물학 교직과목을 수학했으며, 1995년부터 에리히 프롬의 나치 분석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현재 독일 기센Gießen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Brockhaus, G., 1997: *Schauder und Idylle*. Faschismus als Erlebnisangebot, München: Antje Kunstmann.

Dohnanyi, K. v., 1998: ‘Eine Friedenspreisrede. Martin Walsers notwendige Klage’,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4. 11. 1998. S. 40.

Friedländer, S., 1998: ‘Die Metapher des Bösen. Über Martin Walsers Friedenspreisrede die Aufgabe der Erinnerung’, in: *Die Zeit*, Nr. 49(26. 11. 1998), S. 50.

Fromm, E.: siehe die Nachweise am Ende des Bandes

Hecker, M., 1992: ‘Familienrekonstruktion in Deutschland. Ein Versuch, sich der Vergangenheit zu stellen’, in: *Das kollektive Schweigen. Nationalsozialistische Vergangenheit und gebrochene Identität in der Psychotherapie*, hg. von B. Heimannsberg und Ch. J. Schmidt, Köln: Edition Humanistische Psychologie.

47) E. Fromm, 1992l, GA XI, p.572.

Hofmann, G., 1996: ‘Die Welt ist, wie sie ist’, in: *Die Zeit*, Nr. 40(27. 9. 1996), S. 10.

Mitscherlich, A., und Mitscherlich M., 1988: *Die Unfähigkeit zu trauern*, München: Piper.

Mohr, R., 1998: ‘Total normal? Der Streit zwischen Martin Walser und Ignatz Bubis wühlt die Nation auf. Ist die Debatte über die “Dauerpräsentation” der Nazi-Verbrechen Auftakt für eine neue deutsche “Normalität” der Berliner Republik?’, in: *Der Spiegel*, Nr. 49, 1998, S. 40-48.

Müller-Hohagen, J., 1988: *Verleugnet, verdrängt, verschwiegen: die seelischen Auswirkungen der Nazizeit*, München: Kösel.

Richter, H.-E., 1995: *Wer nicht leiden will, muß hassen. Zur Epidemie der Gewalt*, München: Droemersch Verlaganstalt.

Rommelspacher, B., 1998: ‘Öffentliches Reden, privates Schweigen’, in: *Die tageszeitung*, 19. / 20. 12. 1998. S. 7.

Rosenthal, G., 1990: *Als der Krieg kam, hatte ich mit Hitler nichts mehr zu tun. Zur Gegenwartigkeit des “Dritten Reiches” in Biographien*, Opladen: Leske und Budrich.

– 1992: Kollektives Schweigen zu den Nazi-Verbrechen. Bedingungen der Institutionalisierung einer Abwehrhaltung, in: *Psychosozial*, Band 15(Heft 3. 1992: Nr. 51), S. 22-33.

Walser, M., 1998: ‘Wovon zeugt Schande, wenn nicht von Verbrechen. Das Gewissen ist die Einsamkeit mit sich’,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Nr. 277(28. 11. 1998), S. 35.

– 1998a: *Erfahrungen beim Verfassen einer Sonntagsred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1998b: *Ein springender Brunn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Walser, M., und Augstein, R., 1998: ‘Erinnerung kann man nicht



befehlen. Martin Walser und Rudolf Augstein Über ihre deutsche Vergangenheit’, in: *Der Spiegel*, Nr. 45, 1998. S. 48-72.

Walser, M., und Bubis, I., 1998: ‘Wir brauchen eine neue Sprache der Erinnerung. Das Treffen von Ignatz Bubis und Martin Walser: Vom Wegschauen als lebensrettende Maßnahme, von der Befreiung des Gewissens und den Rechten der Literatur’,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Nr. 290(14. 12. 1998), S. 39-41.

Wodak, R., u. a., 1990: *Wir alle sind unschuldige Täter*, Frankfurt am Main: Suhrkamp.